ISSN 1975-6178
『어문논총』 제31호
2017년 8월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omunnonchong* Vol 31. Aug. 2017
http://dx.doi.org/10.24227/jkll.2017.08.31.83

문학 언어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시론
– ‘문학의 언어’에서 ‘문학과 언어’로

정민구*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문학 언어와 해석의 문제
Ⅲ. 문학 언어의 결합성과 정치적 가능성
Ⅳ.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학=언어를 의사소통의 특수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보편적 현상(활동)으로 전제한다. 문학 언어에 관한 기존의 관점들에 노정되어 있는 것처럼, 문학 언어는 특수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하거나 문학의 언어가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방식은 그것을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암호화된 것’, ‘개별적인 것’으로 잔존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문학 언어라는 형식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보이는 것’, ‘판독된 것’, ‘보편

* 전남대학교

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식이다. 문학 언어가 보편적인 구원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그 언어는 '문학의' 언어가 아니라 '아무나의' 언어가 된다. 따라서 문학 언어의 정치적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문학의 언어'에서 '문학과 언어'로 옮겨가는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에크리튀르(écriture), 문학 언어, 일상 언어, 정치적 가능성, 인식론적 전환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사회적 체계는 그 구성원들에게 '글을 쓰는 행위(이하 '에크리튀르écriture')'[1]의 중요성을 강조/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하려는 하위-주체로서의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규칙/요건에 부합하는 글을 쓴 다음 대학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대학 담론이 하위-주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타율적 규율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에크리튀르도 존재한다. (다소 이상적인 대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적 에크리튀르가 그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그 두 가지의 유형을 비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율적이건 자율적이건 간에 그러한 에크리튀르는 모두 언어의 사용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에 있다. 에크리튀르=글쓰기가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

1) 여기에서는 글쓰기라는 행위 및 글쓰기의 언어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에크리튀르'를 사용한다.

상 동어반복이거나 일반론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크리튀르적 측면에서 문학**과** 언어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탐구해 보고자 하는 이 글은 바로 그 관계의 '일반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특수론'에 다다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으로서의 문학은 시(서정시)의 한정된 용법에서 도출된 것이며, 문학과 언어의 문제에 개입하는 관점은 비록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최근의 '정신분석학'과 '문체론' 연구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 둔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에크리튀르에 대한 입장들 혹은 그와 유사한 관점에서 행해진 글쓰기의 일반론에 대한 반론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푸코M. Foucault는 1960년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랑스 내에서의 글을 쓰는 행위에 관한 지적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196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논쟁**도 따지고 보면 말 뿐인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쟁에서 작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을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의 초점은 이론이란 무엇인가에 관련한 것이었고 작가는 언어학이나 기호학, 그리고 정신분석과 같은 과학적 확신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나, 그 이론의 근거를 소쉬르나 촘스키 등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 또는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그다지 흥미 있는 작품이 생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을 미루어 결론을 내려 본다면 **작가의 활동이 더 이상 중요한 논쟁의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2]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

2) M. Foucault, 『권력과 지식』, C. Gordon 편집, 홍성민 옮김, 나남출판, 1997, 161쪽. (약호: PK). 강조는 인용자.

라면, 푸코는 글을 쓰는 행위를 작가의 정치적 활동과 연계시키는 논쟁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단언을 내린 것이 된다. 그에 따르면, 에크리튀르=글쓰기는 작가의 정치적 활동과 직접적인 동일화의 관계에 있지 않거나 그런 관계 도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까닭은 "각각의 개인들이 펼쳐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서 성립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는 글을 쓴다는 사실이 더 이상 지식인의 특권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PK:160-161)이라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일상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쓰는 것과 같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푸코에게 있어서는 '당대의') 에크리튀르=언어는 전문적 작가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작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전유하고 있는 공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적으로 언어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언어활동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문학과 언어의 관계성에 대한 탐구는 그 기원을 설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오래된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3] 반면, 그 오래된 탐구에 대해 반성/반문하는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일 수 있다. 문학과 언어의 문제를 다룬 그간의 입장들은, 위에서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독아론적이고 정치적인 특권을 주장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두 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치중립적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욱 유의미한 측면을 놓치고 말았다. 즉, 문학(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차이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둘 모두가 언어를, 혹은 언어활동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지점을 간과해 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술적 언어의

3) 여기에서의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이전/이후의 언급 모두를 검토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문학의 언어"를 다룬 최근의 연구들을 논평했던 드 만P. de Man의 언급(P. de Man, "Literature and Language: A Commentary",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181쪽.), 곧 그 주제에 해당하는 글들이 너무 다양해서 포괄적으로 논급할 수 없었다는 고백에 동의하면서, 몇몇 주목할 만한 견해들을 검토하면서 다소 한정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조를 탐구했던 로트만I. Lotman은 『예술 텍스트의 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고전주의에 있어서 시는 신들의 언어이며, 낭만주의에 있어서 그것은 가슴의 언어이다. 리얼리즘의 시대는 이러한 은유의 내용을 바꾸지만 그 성격은 유지한다. 즉 예술은 인생의 언어이며 그것의 도움으로 현실은 자기 이야기를 말한다. (…) 그러나 예술이 특별한 전달수단, 특수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언어라면 (…) 예술작품, 즉 이러한 언어로 된 전언들은 텍스트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4]

로트만은 예술적 언어를 일상 언어와 대비되는 특별한 전달수단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예술적 언어로 쓰여진 전언들은 예술 작품/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예술적 언어란 신들의 언어와 가슴의 언어, 그리고 예술적 형식으로 남아 있는 언어를 말한다. 반면, 그의 맥락 속에서 일상 언어를 발화하는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예술의 층위에 올라갈 수 없으며, 더불어 작품이나 텍스트로 보일 수조차 없다. 로트만에게 있어서 일상 언어는 그저 가장 낮은 층위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 언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예술적 언어를 자연 언어와 동일한 것처럼 전제하는 경우에도("비록 자연 언어에 근거하지만"), 본질적으로 "언어 예술은 자연 언어를 그것 나름의 2차 언어, 즉 예술의 언어로 변형"(SAT:41)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형식주의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의 말은 물리적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그 두 언어 사이에 무엇인가 '낯선 것=이질적인 형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그 이중의 언어 사

4) I. Lotman,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옮김, 고려원, 1991, 18쪽. (약호: SAT).

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 '근거'와 '변형'이라는 실체는 결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동일한 예술 공동체에 속하는 '그들에게만' 가시적일 뿐, 그 체제에 속하지 않는 타자들에게는 언제나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다.

비가시적인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비유가 가능할 것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움직인다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익숙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동일한 체제에 속한 구성원들 모두에게 공평한 이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매우 잘 알고 있다.[5] 그런 점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큰손'이라기보다는 '편협한 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제 그 보편적 비유를 문학 현상에 적용해 보자. 말하자면, 문학 현상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모종의 과정invisible process'에 의해 발생한다. 기호학적 의미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을 좁게는 코드code, 넓게는 맥락context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코드와 맥락은 기호 사용자 모두에게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언뜻 그것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거기에는 명백하게 공유되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문학 현상에서 발생하는 기호학적 공유는 언제나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등한 공유는 어떤 상황을 야기하는가?

막스 베버M. Weber를 따르자면, 불평등한 공유의 모티프가 종교적 판본에서 변주되는 양상은 다소 흥미롭다. "[칼뱅이 말하는 구원의 명단에] 선택받은 사람은 신의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이다."[6]

---

5) 이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으로는 스미스A. Smith(『국부론』, 유인호 옮김, 동서문화사, 2008)를 참고할 수 있으며, 보다 현재적인 입장으로는 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6) M. Weber,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상희 옮김, 풀빛, 2006, 118쪽. (약호: PC). 강조는 인용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김덕영 옮김, 길, 2010) 192쪽 각주를 참고하라.

구원의 표시/증거는 구원을 설파하는 사제들에게는 가시적인 것이었지만 구원을 갈구하는 일반 개인들에게는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저 칼뱅이 말하는 대로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이 곧 은총[구원]의 자기 증거'라는 [불확실한] 입장에 머무르기가 불가능"(PC:119)했던 것이다. 정작 중요한 구원의 본질적인 맥락 또는 실체가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경우, 그것이 과연 구원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필연적으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비가시적인 예술의 면전에는 지속-불가능성을 추동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언뜻 반-예술적인 물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물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이미 저 비가시적인 구원에 대한 판본들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언어/예술언어, 손해/이득, 신앙/설교 등에서 보듯, 그 구원들은 명백하게 언어적 구원의 형태, 즉 담론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므로, 실마리는 담론 그 자체에 기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문학 언어의 문제를 다룬 기왕의 담론들을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문학과 언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Ⅱ. 문학 언어와 해석의 문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혹은 '암호화된 것'을 '판독된 것'으로 '상호inter' 전환/번역하는 것은 기호학적 의미에서 '해석interpretation'과 상동한다. 앞서 살펴 본 자본주의와 종교, 그리고 텍스트적 판본에서의 구원은 오로지 해석=응답이라는 긍정적 사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럴 때 사태를 전환시키는 언어적 응답은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있어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진리truth'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지마P.V. Zima가 가다머H.-G. Gadamer를 참조하면서 '미적 진리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영속적인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언급했던 바와 같다.[7] 이때 구원과 미적 진리, 그리고 해석의 과정은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반한 것이다. 예컨대, 적어도 설교하는 자와 믿는 자의 신앙적 관계가 유지되려면, 서로가 동등하게 구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이 '여전히'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일종의 구원의 증거로 비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그럴 때에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언어적 형태의 구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술들을 서정시의 사례에 적용시켜 보자.

오늘날 서정시를 해석하는 표준적인 이론에서는 시적 언어의 한 가지 특성인 '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서정시의 해석자에게 있어서 마치 종교적 구원의 증표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야콥슨R. Jakobson은 시적 기능을 '스스로를 가리키는 메시지의 자기 지시'라고 정의한 바 있다.[8] 자기-지시성은 본래적으로 가능하고 다양한 외연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의 해석 이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서정적 화자의 자기-독백적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수렴된다. 말하자면 그 개념은 "시인의 목소리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서정시"[9]라고 인식되는 과정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은 그동안 서정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장르를 규정짓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7) P.V. Zima, 『문예 미학』, 허창운 옮김, 을유문화사, 1993, 264쪽. 강조는 저자.
8) R. Jakobson,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문학과지성사, 1999, 59쪽.
9) G. Hough, 「현대시」, 『현대시론의 전개』, 박인기 편역, 지식산업사, 2001, 52쪽.

주었다. 『문학용어사전』[10]에서 서정시를 '어떤 한 사람의 화자가 등장하여 마음의 상태 또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는 적당히 짧고, 비-서사적인 시'라고 '일방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대목을 읽으면서도 서정시의 해석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런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러한 일련의 인식적 훈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정시의 언어는 시인의 주관적 언어'라는 도식을 자연스럽게 혹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온 것이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이, 현대 문학이론의 끝머리 정도에 위치하는 포스트(post-) 이론들은 '절대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뚫린 길'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삐딱한' 진리/실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포스트 이론이 추동하는 '다시 한번 다르게 보기'의 관점은 서정시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럴 경우 우선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주관적 목소리로 구축된 서정시의 절대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서정시의 발화가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전제를 인정하면서도 포스트 이론에서는 이미 그 발화 속에 또 다른 목소리의 현존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캉J. Lacan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아=타자의 구도를 언급하고 있는 핑크B. Pink의 말을 들어보자.

>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는 저 담화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과는 생각보다 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았다. 실로 그것은 언어로서의 이 **다른** 현존에 의해 침투되어 있는 것이다. 라캉은 이를 분명한 용어로 표현한다: **자기는 타자이다**, 자아는 타자이다.[11]

10) M.H. Abrams,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옮김, 보성출판사, 1998, 239쪽.
11) B. Pink, 『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10, 31쪽.

자기=타자의 구도에 따르자면, 서정시의 '자기 목소리=독백'은 '타자의 목소리=대화'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서정시 속에는 부재하는 시인의 독백적인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현전하는 말하는 주체의 대화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다. 라캉의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의 부재가 오히려 타자를 생성하는 과정은 서정시인의 부재가 타자의 존재를 현존하게 만드는 과정과 부합한다. 이러한 진리/실재의 막힘이 열림으로 이어지는 사태 혹은 부재하는 자의 목소리가 현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불러오는 사건은 오로지 담론의 구성적 차원을 위해서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문학 현상의 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잘 알려진 한 사례를 들어본다.

>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오./**(길은막달은골목이適當하오.)**//第一의兒孩가무섭다고그리오./第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四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五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六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七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八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九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十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十一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十二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고그리오./十三人의兒孩는무서운兒孩와무서워하는/兒孩와그러케뿐이모였소./(다른事情은업는것이차라리나앗소)//그中의一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그中의二人의兒孩가무서운兒孩라도좋소./그中의二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그中의一人의兒孩가무서워하는兒孩라도좋소.//**(길은뚤닌골목이라도適當하오.)**/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야도좋소
>
> – 李箱, 「오감도 – 詩제1호」, 전문. 강조는 인용자.

처음 지면에 발표되었을 때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李箱의 「오감도」

연작은 여전히 문제적인 텍스트로 간주된다. 그것은 텍스트의 해석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천재 시인의 언어=목소리만이 주어져 있으며, 그 의미를 밝혀줄 천재 시인이 부재한다는 사태와 시에 부여된 '난해함' 혹은 '새로움'이라는 난공불락을 지향하는 수식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난해하고 새로운 시에 대한 해석 자체가 아예 시도조차 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李箱의 텍스트에 대한 모든 (불)가능한 해석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다.[12] 예를 들어, 권영민은 1998년에 李箱 연구자들의 성과를 모아 『이상문학 연구 60년』[13]을 결산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후 그는 『이상 텍스트 연구』[14]를 통해 '텍스트로서의 이상'을 다시 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지난 10년 전의 연구가 '관념주의'와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었음을 반성한 후, 노정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李箱의 원-텍스트를 복원하여 세부적으로 읽으면서 난해했던 그의 텍스트를 '메타적 글쓰기'와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포스트 담론에 따라 재-분석한 것이다. 도출된 해석 결과가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이며, 새로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문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李箱의 텍스트 분석에 존재하던 오인mis-recognition을 우선적으로 인정recognition한 후, 李箱의 '문학'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난해한("막달은골목")' 텍스트를 '다시 새롭게("뚤닌골목")' 인식re-cognition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李箱의 텍스트는 상호-역동적인 담론의 대화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수정될 수 있는 해석 과정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상 문학의 의미는 새롭게 생성될 것이다. 요컨대 미적 진리는 환상을 토대로 구

12) 지면 관계상 몇 백편에 달하는 성과물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권영민의 사례만을 살펴본다.
13) 권영민 편, 『이상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14) 권영민,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축된 새롭고 절대적인 문학 언어에 의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해석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 문학은 하나의 새로운 언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특수한 사용을 통해서 마치 언어가 왜곡된 언어, **장식된** 언어, 변형된 언어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행해진다. **작품에** 나타나듯이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 언어의 새로움은 스스로 구성하는 힘에서 생겨난다. (…) 그리하여 이 언어는 일상 언어와 구별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말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언어, 순수한 언어, 독립된 언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어떤 관용이나 엄격한 정의의 구속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언어는 특이한 자유 즉 즉흥적 제작의 힘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특이한 자유는 시의 독점으로 잘못 간주되어 왔는데, 실제로 그 모든 표현 속에서 작가의 행위를 특징짓는다.[15]

마슈레P. Macherey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학적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필요도 없다("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스스로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즉흥적 제작의 힘"이라 불리는 그것은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인해 왔던 '특정한 문학'='서정시'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일상적 발화 "너, 시가 알아?"[16]에서처럼 언어의 특이성을 산출해내는 용법들이 에크리튀르를

15) P. Macherey,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배영달 옮김, 백의, 1994, 54~56쪽. 강조는 저자.
16) 여기서 '시가'는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담배=시가cigar'인 것도, '노래=시가詩歌'인 것도 아니며, 단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특징짓는 것이지 언어 자체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결국 우리는 오늘날의 이론들이 공표하고 있는 뻐딱한 신념,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말하고 있다"[17]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서정시에 있어서도' 해석이란 자기/자아로부터 '언어=타자'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타자'로부터 자기/자아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언어는 제약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언제나 본질적으로 나(=주체)와 너(=타자)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는 것이다.

'문학적인 언어가 존재하느냐'에 관한 논의의 한편에서는 문학과 일상 언어 사이의 경계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입장도 있다. 마일스J. Miles와 채트먼S. Chatman이 그러하다. 먼저, 마일스는 「숲과 나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 시인의 언어는 자신의 잎맥이나 지문을 갖는다. 그것은 언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주는 나선들이며, 연대성의 양식 안에서의 개별성이다. (…) 그러나 하나의 잎맥이 독특한 것은 다른 잎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숲의 일부에 불과한 잎맥의 사소함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18]

'숲'과 '나무'라는 친근한 비유가 보여주듯,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맥을 같이 하는 지점에서 마일스의 언급은 언뜻 시인의 언어가 '개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오인이며, 그의 언급에 나타난 논리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항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

17) C. Belsey, *Critical Practice*, London:Methuen, 1980, 44쪽.
18) J. Miles, "Forest and Trees: Or, the Sense at the Surface",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41쪽.

인 담론적 전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 먼저, 시인의 언어가 갖는 개별적 특징은 잎맥=지문=나선들로 비유된다. 잎맥의 단독적인 나선들과 지문에 나타난 자체-완결적인 ('지문=나'의 관계에서처럼 자기-지시성을 연상시키는) 나선들은 '독특한/개별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런데 마일스는 나뭇잎맥:나무숲=부분:전체=독특함:사소함의 도식을 적용하여, 독특함과 개별성은 그것이 본래부터 유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비록 일탈의 낙인이 찍히겠지만 '群鷄一鶴'의 지위를 차지하는 한 마리의 '학'처럼) 자신 만의 모종의 일탈을 시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사소함의 지위에서 독특함의 지위로 옮겨가는 이런 '자리-옮김shift'에 대한 주목이 그의 담론적 전회의 핵심이다.

어느 정도 마일스와 유사한 맥락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견해 피력하고 있는 채트먼은 「'형식'을 정의하기」에서

> 문학 작품의 내용은 언어라기보다는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무엇, 바로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다. (…) 그러므로, 연작 시인에게 동일한 주제 위에서 절묘하게 변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각각의 문체에 사용되는 [언어적] 요소들의 수가 아니라 오히려 시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합의 상당수에 있다[19]

라고 지적한다. 물론, 채트먼이 말하는 시인들의 자유는 시적 언어의 고유한/본유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 사용자로서의 시인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은 다른 언어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언어의 일반론적인 견해

19) S. Chatman, "On Defining 'Form'", *New Literary History*, Vol.2, 1971, 226~227쪽.

와 맞닿아 있다. 그런 일반론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내용은 결코 (문학의) 언어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지점에 있다. 거기에서 문학의 언어는 어떤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결합 행위 그 자체가 된다.

이상과 같은 입장들을 고려한다면, 언어에 대한 기존의 상식적인 입장은 공교롭게도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의 이분법이라는 '비생산적인' 도식에서 탈피하여, 언어 일반이라는 '생산적인' 도식으로 복귀하게 된다. 언어 일반의 도식이 생산적인 까닭은 그것이 언어가 언어-사용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유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 형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생산'이라는 개념은 "주체에 대한 객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객체에 대한 주체도 창조한다"[20]는 맑스K. Marx적 의미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가령, 훈민정음 창제의 일반 목적은 '백성=언어-사용자'가 겪고 있는 언어 문제를 평등한 '문자=언어'의 보급이라는 형태로 해결하여 언어의 의미 생산성(임금과 백성의 의사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그러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와 절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언어는 문학 작품이건 일상의 발화에서건 언제나 의미=해석을 생산/생성한다. 결국 문학 언어와 해석의 관계에서 대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지점은 문학'**의**' 언어라는 소유 관계에서가 아니라 문학'**과**' 언어라는 대등 관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

20) K. Marx, *Grundrisse*, tr. M. Nicolaus, Harmondsworth:Penguin, 1973, 92쪽. A. Easthope, 『시와 담론』, 박인기 옮김, 지식산업사, 1994, 51쪽 재인용.

21)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등 접속사 'et/and'의 생성적 의미는 물론 들뢰즈G. Deleuze의 것이다. 우리는 그 생성적 의미에 평등성과 대화성의 속성을 덧기입하고자 한다.

Ⅲ. 문학 언어의 결합성과 정치적 가능성

하이데거M. Heidegger는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언어가 사물을 사물로서 조건짓는다. (…) 그러나 언어는 사물을 사물적으로 기초짓지는 않는다. 언어는 사물을 사물로서 현존하게 한다"[22]고 단언했다. 이것은 언어가 사물의 존재론적 토대는 아니며, 다만 언어의 기능을 통해 사물이 현존하게/드러나게 된다는 '언어 현상'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나타남/드러남은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들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분명히 '메타적인' 것이다. 어원적으로 "희랍어에서 [유래한] meta는 운동 또는 변화를 나타내는 전치사다."[23] 그래서 메타-언어meta-language는 언어에 대해 말하는 언어이며, 메타-이론meta-theory은 이론에 대해 말하는 이론이 된다. 이때 대상이 되는 언어/이론이 달라지면, 메타-언어/이론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메타적인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언어가 지닌 메타적 유동성은 간과될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이 된다. 그런데, 문학 언어/해석의 본질적 특성으로 유동성을 상정할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안정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고정성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상, 언어의 유동성/고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

> 기의는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의해 **조정되고 변형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기표의 투명성이나 기표의 우

22) M. Heidegger,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민형원 옮김, 경문사, 1979, 22쪽. (약호: OA).
23) H.G. Liddel, R. Scott, *Greek-English Lexicon*, London:Oxford Univ. Press, 1960.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2008, 99쪽 재인용.

> 위성 개념은, 일단 언어가 사회적 소통의 수단으로 공인된 다음에는 그 기표가 **임의적으로 바뀌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 주장 하에 있다.[24]

에코U. Eco의 기호학에 근거한 위의 설명에 따르면, 기의는 "기표에 의해 조정되고 변형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공인된 기표는 "임의적으로 바뀌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지닌다. 그런데 의미 작용은 저 기표와 기의의 '결합/통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기호=의미는 유동성과 고정성을 동시에 내재하는 표현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기호학의 표준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과정에 대해 기술해보자. 먼저 기호계semio-sphere에서 기표와 기의는 조화를 이룬다. 그런데 기의가 불변의 요소라는 위치에서 내려올 때, 기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표는 오히려 불변의 지위로 상승한다. 그에 따라 기의는 변수variant가 되고 기표는 상수constant가 된다.[25] 변수로서의 기의의 수는 무한하지만, 상수로서의 기표의 수는 유한하다. 여기서 우리는 '유한한 기표 밑으로 무한한 기의가 미끄러지면서 의미가 생산된다'는 친숙한 라캉적 전언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의의 '위'에 자리하면서, 불변의 요소로서의 기표가 갖는 우위성과 투명성이라는 기호학적 정의를 정신분석학적 대상-원인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기표와 기의가 전도되어 결합하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의미작용=언어활동의 새로움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합의 새로움에 관한 언급하고 있는 고진柄谷行人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

24) 서우석, 「시어의 기호학」, 『현대시사상』 여름호, 고려원, 1991, 53쪽. 강조는 인용자.

25) 변수variant와 상수constant에 대해서는 M. Riffaterre(『시의 기호학』, 유재천 옮김, 민음사, 1989)를 참고하라.

> 구니키다 돗포[소설가]의 '새로움'은 그['루소처럼 인간이 자신을 언어화하는 것 같은 새로운 결합을 실천하는 것']와 유사할 것이다. 그의 근본적 '장애'는 바로 그의 '투명함', 즉 '주체와 언어가 서로 외부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결합'에 있는 것이다.[26]

'서양=루소J.-J. Rousseau'에서 '동양=돗포國木田獨步'으로 옮겨오는 '시차적 관점parallax view'을 통해, 우리는 언어적 결합성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언어란 보편적으로 메타적인 것, 유동적인 것, 고정적인 것들이 혼효=결합되어 있는 '내부적' 형태인 것이며, 새로운 의미는 새로운 결합으로부터 생성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앞서의 인용을 이어가면서 다시 가시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비밀로서 먼 곳에 머문다. 그러나 이 비밀이 체험될 때 그 거리는 가깝게 된다. 이렇게 가깝고도 먼 거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언어의 비밀을 단념하지 못하게 한다"(OA:26)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의미=해석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비밀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언어의 비밀을 체험하려는 언어 사용자의 의지가 그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를 가능케 한다. 그와 같은 의지의 발현이 바로 대화로서의 '소통 행위'이며, 그것을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표현하자면 곧 '언어 현상'이 될 것이다.

소통 행위로서의 언어 현상은 언어 사용자에게 있어서 보편적이며 상호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말하자면, 언어 사용자인 우리가 비밀과 마주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보는 것), "먼 것을 가깝게 하고, 가까운 것을 멀게 하면서, 이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져 벌이

26) 柄谷行人,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b, 2010, 79쪽.

는 유희"(OA:25)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비가시적인 비밀은 특수한 것이지만, 가시적인 비밀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비밀의 체험은 "연대성의 양식 안에서의 개별성"의 현존을 위한 가능한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시 또는 산문의 일부를 몰입하여 읽을 때, 우리는 무한한 특이성의 모체matrix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우리가 그것에 전념하면 할수록,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이 복잡하고 독자적인 삶의 어떠한 경험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휘말려 들어"[27]가게 된다. 루이스 캐럴L. Carroll의 앨리스Alice처럼, 우리는 일상의 언어라는 관문을 통해, 특이성의 세계(='이상한 나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새로운 언어적 경험을 획득한다. 그런 의미에서, 랑시에르J. Rancière와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은 타당하다.

> "문학"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역사적 독창성은 특별한 언어의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가시적인 것, 낱말들과 사물들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에 있다.[28]

> 언어는 말하는 행위 가운데서, 즉 제시하여 보여주는 행위 가운데서 사물을 사물로서 나타나게 한다. (…) 언어는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말해질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사물로서의 사물을 우리에게 건네준다.(OA:26-27)

물론, 여기에서 랑시에르와 하이데거가 만나는 지점은 필연적이면서도 우발적이다. 둘은 언어의 기제가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인 것들로

27) G. Steiner, "Whorf, Chomsky and the Student of Literature",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27쪽.
28) J. Rancière, 『문학의 정치』, 유재홍 옮김, 인간사랑, 2009, 21쪽. (약호: PL).

변형시킨다는 데에, 혹은 그 둘 사이에 개입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이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언어의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스스로 '정치적 행위'를 실천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랑시에르가 말하는 문학=언어의 정치적 가능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여기에서 랑시에르가 말하는 문학의 정치는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처럼, "권력 행사와 권력을 위한 투쟁"(PL:10)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상들과 주체들을 공동 무대 위에 오르게"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하며, 킁킁대는 동물로 취급되었던 사람을 말하는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문학이 시간들과 공간들,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구획 안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PL:12) 이때, 문학=언어의 정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저자author와 같은 특수한/특권적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적 주체화란 "더 이상 사회의 일부에게만 한정된 능력이 아니라 모두('아무나')가 가진 능력이 되는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다."[29]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차이가 무화되는, 아니 오히려 차이를 통해 새롭게 결합하는 그 '동등한' 능력들의 상호 발현 양상을 '소통'의 일반적 정의 속으로 유입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문학=언어의 정치성, 혹은 정치적 가능성은 저 문학**과** 언어, 문학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암호화된 것**과** 판독된 것, 질문**과** 대답,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연대성**과** 개별성, 비가시적인 것**과** 가시적인 것, 특수성**과** 보편성처럼 차이 나는 것들 간의 동등한/평등한 결합('만남')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

29) J. Rancière, 「동시대 세계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들」, 중앙대학교 강연문(2008. 12. 04). 김수환, 「랑시에르와 미학의 정치」, 『문학들』 여름호, 2009, 49쪽 재인용.

Ⅳ. 나오는 말

이 글은 문학=언어를 의사소통의 특수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보편적 현상(활동)으로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특수에서 보편으로 전화하는 언어에 대한 관점은 근래에 진행된 인지과학(언어학, 심리학 등)의 성과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 스틴G. Steen은 '문학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두 언어의 상호-관련성(유사성)을 검증했던 젠트너D. Gentner의 글[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 적이 있다.

> 사실상, "문학적 은유"에서 "표현적 은유"로, 그리고 "과학적 유추"에서 "설명적 은유"로 변화하는 젠트너D. Gentner의 혼란스러운 용어 사용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암시해준다. 이런 변화들은 담론의 상이한 두 가지 양상의 융합을 내포하고 있다[31]

엄밀한 관점에서 문학과 과학의 언어를 검증하려고 했던 젠트너는 그 두 언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용어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 스틴이 보기에 그 혼란의 원인은 문학과 과학의 언어가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담론이라는 점에 있다. 물론, 젠트너에서 스틴으로 이어지는 두 언어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은유의 구조와 기능의 양상을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양상을 달리하여 전개되지만, 여기에서는 스틴이 포착했던 혼란의 본질적인 부분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의 언어와

30) D. Gentner, "Are Scientific Analogies Metaphors?", in *Metaphor: Problems and Perspectives*, ed. D.S. Miall, UK: Harvester Press, 1982, 106~132쪽.
31) G. Steen, "Literary and Nonliterary Aspects of Metaphor", *Poetics Today*, Vol.13, 1992, 690쪽.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학의 언어는 서로 혼효/융합되어 있다. 언어들의 융합이 곧 문학의 언어라면, 문학의 과학적이거나 정치적 실천이라는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해 문학 언어의 특수성을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단언의 궁극적인 지평을 이해할 수 있다.

> 여기[『혼불』에] 채용된 어휘나 문장 수준의 언어 요소에서 일상어와 특별히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문학 언어'가 실로 있어서, 표현할 때 이를 채용함으로써 일상적 담화와 다른 언어적 미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언어 운용의 기제를 통해 문학적 효과가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32]

다시 말해, 문학 언어와 일상 언어("일상어")에는 차이가 없으며, 만약 문학에서 무엇인가 다른 효과가 생성된다면, 그것은 "언어 운용의 기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로부터 좀 더 확장된 진술도 가능할 것이다. '문학 언어/문학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는 없으며, 그것은 '심미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美'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요컨대 문학성과 심미성, 미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비가시적인 것들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학 언어는 결코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다다랐다. 이러한 판단은 문학 언어의 자리를 지우면서 그 자리에 일상 언어를 통한 대리보충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과정은 자칫 우리를 문학적인 언어와 미적인 언어의 '부재' 혹은 '결여'라는 예상 밖의 상황 속으로, 예술(적인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

32) 장일구, 「문학 언어의 미감과 문체 영향」,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12, 14쪽.

no-thing의 위험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데리다J. Derrida가 말했던 것처럼 저 '위험천만한 대리보충'은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휠덜린F. Hölderlin의 시 「파트모스Patmos」에 등장하는 구절의 역설적 판본에서처럼,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구원이 자랄 수 없다.'[33] 따라서 문학 언어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다. 그러한 부정은 단절이 아니라 재해석을 위한 전환이다. 사실상, "미학적 예술 체제는 예술적 단절의 결정들과 더불어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이 만드는 것 또는 예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재해석의 결정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34] 앞장에서 제시했던 권영민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그는 기존의 해석을 부정하고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결코 단절이 아니다. 혹여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 단절의 형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하더라도, 끊임없이 수행되는 전환 속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결합/생성되기 마련이다.

문학 언어의 특수성에서 빠져나온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no-thing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부재의 지점에 우리는 '평등한 소통의 역동적 과정'을 결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문학 언어를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특수한 용법에서의 에크리튀르는 일반적 용법이라는 소통의 층위로 내려온다. 거기에서 '나(=주체)'와 '너(=타자)'의 언어는 끊임없이, 아무런 장애물(noise) 없이 상호 융합되며 해석되고 이해된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해란 항상 독자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지평들의 융합인 것이다."[35] 여기서 지평들의 융합이란 해석의 '종속'이 아니라 그것의

33) 본래의 시행은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엔/ 구원도 따라 자란다"이다. F. Hölderlin, 『궁핍한 시대의 노래』, 장영태 옮김, 혜원출판사, 1990, 366쪽.
34) J. Rancière, 『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b, 2008, 32쪽.
35) H.-G. Gadamer, *Truth and Method*, tr. J. Weinsheimer, D.G. Marshall, London & New York:

‘해방’을 의미한다. 그 융합 속에서 개별자들의 에크리튀르가 갖는 소통/해석적 지평은 일종의 ‘기호학적 순환’에 근접해 간다. 말하자면, 우리는 문학 언어를 통해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전유하여 단순히 주관적으로 현재인 것, 익숙한 것에 환원시키지 않고, 개별적인 지평이 확장되도록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색한 문학 언어의 정치적 가능성은 개별적 지평들의 융합과 확장, 해방을 가능케 하는, ‘문학의 언어’에서 ‘문학과 언어’로 옮겨가는 문학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출구 속에 우선적으로 놓여있을 것이다.

Continuum, 2006, 305쪽.

|참고문헌|

권영민 편, 『이상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이상 텍스트 연구』, 뿔, 2009.

김수환, 「랑시에르와 미학의 정치」, 『문학들』 여름호, 2009.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2008.

서우석, 「시어의 기호학」, 『현대시사상』 여름호, 고려원, 1991.

장일구, 「문학 언어의 미감과 문체 영향」,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12.

柄谷行人,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도서출판b, 2010.

Abrams, M.H.,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옮김, 보성출판사, 1998.

Belsey, C., *Critical Practice*, London:Methuen, 1980.

Chatman, S., "On Defining 'Form'", *New Literary History*, Vol.2, 1971.

de Man, P., 「Literature and Language: A Commentary」,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Easthope, M., 『시와 담론』, 박인기 옮김, 지식산업사, 1994.

Foucault, M., 『권력과 지식』, C. Gordon 편집, 홍성민 옮김, 나남출판, 1997

Gadamer, H-G., *Truth and Method*, tr. J. Weinsheimer, D.G. Marshall,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6.

Heidegger, M., 『예술작품의 근원』, 오병남·민형원 옮김, 경문사, 1979.

Hölderlin, F., 『궁핍한 시대의 노래』, 장영태 옮김, 혜원출판사, 1990.

Hough, G., 「현대시」, 『현대시론의 전개』, 박인기 편역, 지식산업사, 2001.

Jakobson, R., 『문학 속의 언어학』, 신문수 편역, 문학과지성사, 1999.

Lotman, I.,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옮김, 고려원, 1991

Macherey, P.,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배영달 옮김, 백의, 1994.

Miles, J., "Forest and Trees: Or, the Sense at the Surface",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Pink, B.,『라캉의 주체』, 이성민 옮김, 도서출판b, 2010.

Rancière, J.,『감성의 분할』, 오윤성 옮김, 도서출판b, 2008;『문학의 정치』, 유재홍 옮김, 인간사랑, 2009.

Riffaterre, M.,『시의 기호학』, 유재천 옮김, 민음사, 1989.

Steen, G., "Literary and Nonliterary Aspects of Metaphor", *Poetics Today*, Vol.13, 1992.

Steiner, G., "Whorf, Chomsky and the Student of Literature", *New Literary History*, Vol.4, 1972.

Weber, M.,『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상희 옮김, 풀빛, 2006;『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옮김, 길, 2010.

Zima, P.V.,『문예 미학』, 허창운 옮김, 을유문화사,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Literary Language

:From 'language of literature' to 'literature and language'

Jeong, Min-gu

This paper assumes that literature=language is not a special tool of communication but a universal phenomenon of communication (activity). As included in existing perspectives on literary language, the way in which literary language is considered to be composed of a particular language or language of literature is presumed to have political competence makes it always "invisible", "encrypted" or "individual". But if the form of literary language is something that can deliver salvation to our lives, it should rather be 'visible', 'decrypted', or 'universal'. The universal way of salvation in the true sense would be like that. In the place where literary language performs universal salvation, it becomes the language of 'everyone' rather than the language of 'literature'. Therefore,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literary language can be searched first through the epistemological turn from 'language of literature' to 'literature and language'.

Key words : Writings/Languages(écriture), Literary Language, Ordinary Language, Political

Possibility, Epistemological Turn

이 논문은 2017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7년 8월 3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7년 8월 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